

김도영, KBO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

13일 안방 한화戦 5회 1타점 적시타...이승엽 기록 27년만에 넘어서

수술 나흘만에 복귀전 새 역사...역대 18번째 대기록 작성



KIA 타이거즈 '슈퍼 스 타' 김도영이 KBO리그 역대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 금자탑을

쌓았다.

김도영은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시즌 100타점을 달성했다.

기다리던 기록은 5회말 나왔다. KIA가 3-2로 앞선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한화 선발 화이트를 상대로 좌전 적시타를 터뜨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경기 전까지 40홈런-99타점-105득점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이 안타로 100타점 고지를 밟았다. KBO리그 역대 18번째 '40홈런-100타점-100득점'의 주인공이다.

최연소 기록도 새로 썼다. 이날 22

세 11개월 11일인 김도영은 1999년 이승엽이 22세 11개월 20일에 작성한 역대 최연소 '40-100-100' 기록을 9일 앞당겼다. 27년간 깨지지 않았던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부상을 딛고 작성한 기록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김도영은 지난 9월 NC전에서 기습 벤트를 시도하다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골절됐다. 수술까지 받으면서 장기 이탈 우려가 나왔지만 11일 퇴원한 뒤 컨디션을 점검했고, 불과 나흘 만에 선발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김도영의 올 시즌 성적도 눈부시다.

지난 9월까지 122경기에서 타율 0.306, 137안타, 40홈런, 99타점, 105득점을 기록했다. 출루율 0.411, 장타율 0.635를 합친 OPS는 1.046에 달했다. 여기에 이날 5회 적시타로 마침내 100타점을 완성했다.

시즌 중반부터 방망이는 더욱 뜨거워졌다. 6



월 타율 0.354, 11홈런, 26타점을 몰아쳤고 7월과 8월에도 나란히 0.321의 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

부상과 수술도 김도영의 질주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수술 나흘 만에 돌아온 그는 복귀전에서 27년 묵은 기록까지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김도영은 7회에도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시즌 101타점째를 채웠다.

한편 나성범도 이날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나성범은 4회말 안타를 때려내며 KBO 역대 23번째로 개인 통산 1900안타 대열에 합류했다.

/주홍철 기자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13일 열린 한화와의 홈 경기에서 5회말 적시타로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을 달성한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홍식 동신대 명예교수 AG 코리아하우스 단장 선임

김홍식(사진) 동신대 명예교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코리아하우스 단장에 선임됐다.

김홍식 동신대 명예교수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이치·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 단장을 맡아 대한민국선수단 및 스포츠 외교 지원,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 및 국제스포츠 관계자와의 교류 확대, K-콘텐츠 종합 홍보 및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국제적인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친다.

5개 기관이 협업해 운영되는 코리아하우스는 오는 18일 오후 8시 나고야에서 공식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추석인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는 한국 문화 공유 및 각국 선수단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홍식 명예교수는 현재 대한체육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체



육회 이사,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역임했고, 2017타이페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단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게임 코리아하우스 부단장

으로 활동한 체육행정 전문가다.

김 교수는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코리아하우스 단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대한민국 선수단의 스포츠 외교를 지원하고, 아시아 각국 및 국제스포츠 관계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음식·관광·문화·기술 등 K-콘텐츠를 아시아 각국 선수단이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더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태극전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모레노 감독 임국 “선임 이후 대표팀 경기 계속 분석…한국 문화도 공부”

“대표팀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압도한 경기력 속에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당한 한국 축구 부흥의 책임을 맡은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임시 감독이 “태극전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올렸다.

모레노 감독은 임시 감독은 5명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며 국내 축구 팬을 향해 첫인사를 했다.

모레노 감독은 입국장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임시 사령탑 직을 지원한 계기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했다”라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임시 사령탑을 맡은 모레노 감독은 이후 대표팀 경기력 분석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임 직후 매일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경기를 진행했는지 분석했다”라며 “한국의 문화도 계속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 것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13일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선 “북중미 월드컵 결과는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 일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 목표는 지금 앞에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는 많지 않지만 오직 대표팀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이름으로 광주와 전남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육상 유혁수 ‘한국新’·전남 카누 종합우승 5연패

광주, 역도 양지은 ‘3관왕’·수영 정봉기 ‘金’·파크골프 황선하 ‘金’
전남, 사이클 박솔기·카누 손영숙 ‘2관왕’...댄스스포츠 무더기 금



전국 장애인체육인들의 스포츠 축제에 참가한 통합특설시 광주·전남선수단이 무더기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 통합특설시 광주선수단은 대회 3일째인 13일 금메달 28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26개를 따내며 종합 득점 5만2천333.1점으로 종합 순위 5위를 유지했다.

효자 종목 육상에서 ‘금빛 ناب보’가 이어졌다. 올해 광주시장에인체육회를 통해 발굴돼 첫 출전한 육상 유혁수(광주시장애인체육자연맹)가 남자 원반던지기(F44)에서 36m를 던져 종전 한국신기록 34.09m(2021년)을 5년 만에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1일 남자 포환던지기(F44)에서도 11.65m를 기록으로 종전 한국신기록(10.69m)을 경신하며 장애인체전 첫 금메달을 신고한 유혁수는 15일 창던지기(F44)에서도 한국신기록 경신을 목표로 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이어 남자 포환던지기(F20)에서는 장산영(한국전력공사)이 11.83m(한국신기록)로 금메달을, 여자 100m(T12)에서도 김선정(광주시장애인체육자연맹)이 15.11초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앞서 11일 열린 여자 창던지기(F33)와 남자 원반던지기(F38)에서도 소제은과 조민욱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에서도 3관왕이 나왔다.

양지은이 여자 -41kg급에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 벤치프레스 종합) 3개를 모두 경신하며 3관왕 2연패를 달성했고, 남자 -59kg급에 출전한 박종선도 2개의 한국신기록(웨이트리프팅, 벤치프레스 종합)을 포함해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수영에서는 정봉기가 남자 배영 50m(S5)에서 48.73초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빛 물살’

을 갈랐다.

파크골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 파크골프 개인전(PGST3)에 나선 황선하(한국전력공사)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대회 동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선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특설시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32개, 은메달 36개, 동메달 27개 등 총 9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득점 5만362점으로 종합 순위 7위에 자리했다.

전남선수단은 고른 종목에서 2관왕을 배출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클 박솔기(한전KDN)가 남자 트랙 독주 1km(C2)에 이어 남자 개인도로독주 14.3km(C2)에서도 정상에 올라 2관왕을 차지한데 이어 육상 강수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여자 800m(T20)와 여자 높이뛰기(T20)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카누에서는 손영숙(한국전력공사)이 여자 바아 200m 스프린트(VL3)와 여자 카약 200m 스프린트(KL2)를 석권해 2관왕을 달성했다. 손영숙의 활약을 앞세운 전남 카누팀은 종합 우승 5연패라는 값진 대기록을 세웠다.

대회 첫날에 이어 육상에서 금빛 레이스가 이어졌다.

김철만이 남자 400m(T34)와 남자 100m(T34)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황상준이 남자 5,000m(D)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정하·이창훈은 남자 5,000m(T12)에서, 정대광은 남자 원반던지기(F55)에서 각각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미욱도 여자 원반던지기(DB)에서, 노병일은 남자 포환던지기(F53)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에서는 김동욱이 남자 개인도로독주 14.3km(H2), 허윤정이 여자 개인도로독주 14.3km(H3)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고, 카누에



첫 출전한 장애인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유혁수(가운데)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사이클에서 2관왕에 오른 박솔기(왼쪽)가 강병수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서는 신경문이 남자 바아 200m 스프린트(VL3)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힘을 보탤다.

댄스스포츠에서도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한창우·문장미가 호흡을 맞춘 혼성콤비 라틴 룸바 Class 1, 문지성·주은진이 팀을 이룬 혼성콤비 라틴 룸바 Class D와 차차차 Class D, 한창우·문지성이 나선 혼성콤비 라틴 삼바 Class 1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선수단의 메달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전남 테니스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김현수·신선호·최용궁·한성봉이 팀을 이룬 남자 단체전 OPEN에서 값진 동메달을 합작하며 전남 장애인 테니스 단체전 사상 첫 메달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박희중 기자